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이 새 현¹⁾

가톨릭대학교 아동상담학과

정 윤 경²⁾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이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정서조절곤란이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3~6세 자녀를 둔 만 21~49세 어머니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4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를 통하여 매개효과 분석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중 지지적 반응에 부적으로 비지지적 반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서조절곤란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중 지지적 반응에 부적으로 비지지적 반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표현에 대한 반응(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 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의 곤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서조절곤란의 부분매개 경로를 확인하며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에 제시하였다.

주요어 : 양육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 이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아동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논문이며, 가톨릭대학교 교비 연구비(M-2017-B002-00004) 지원을 받았음.

1) 가톨릭대학교 아동상담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benijeong@catholic.ac.kr)

I. 서론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혹은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Fishbein & Aizen, 1975)을 포함하며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Becker, 1964). Fishbein과 Aizen(1975)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신의 경험과 성장상황의 영향을 받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정의하였다. 김도란과 김정원(2008)의 연구에서는 어린 영·유아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모인선과 김희연(2005)도 어머니의 정서 상태, 성격,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개념, 성격과 정서 상태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부모의 돌봄 행동이 지나치게 적거나 혹은 과도하여 과보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모두가 자녀에게 우울이나,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뿐 아니라,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와도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Andrews, Henderson, & Mackinon, 1993; Parkers, 1979; Ray & Plapp, 1990: 허요연, 1999에서 재인용).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양육 행동 아래 성장한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행동을 하며, 부모의 거부적, 과보호적, 엄격, 기대, 모순, 불일치적 양육을 받으며 성장한 아동은 정서적 부적응을 나타내게

된다(김숙형, 2004; 박혜경, 박성연, 2002). 또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낮은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고(최미미, 2008; Hardy, Power, & Jaedicke, 199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타인 양육의 질이 상호작용하여 영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양연숙, 조복희, 2001). 이처럼 중요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꾸준히 연구되면서 양육태도보다는 양육행동의 개념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박민혜, 정윤경, 2012). 그 이유로 먼저 기존 연구에서 다른 양육태도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었고, 여러 학자가 양육태도와 행동을 혼용하여 경계가 모호해지고 두 개념 간 정의가 유사해지는 문제가 두드러졌으며, 아동에 대한 느낌과 추상적인 태도는 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태도보다는 양육행동이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는 장점 등이 있다. 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일어날 수 있는 부모의 반응행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손승희, 이은혜 2004; 이진숙, 한지현 2004; 홍계옥, 2001).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 반응성을 측정할 수 있는 양육행동으로 최근 들어 이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특히, 양육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가 되면서 정서 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Denham, 1993; Dune, Brown, & Beardsall, 1991; Garner, Jones, & Miner, 1994). 정서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Eisenberg, Cumberland과 Spinrad(1998)은 정서 사회화 과정에 대한 모델(socialization of emotion)을 연구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자녀의 특성, 부모의 특성,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은 유아의 정서 경험, 정서의 이해와 조절, 정서표현과 자기-관계-대상의 도식(schema)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어 자녀가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 시, 사회적 유능감(social emotional competence)을 부여해주고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격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정서표현(expression), 정서에 대한 대화(discussion),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reaction)의 3가지 행동을 제안하면서 특히, 자녀의 정서경험과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강조했고.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보여주었다(Eisenberg et al., 1999).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일관된 행동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또래관계 사이에서 거부되지 않고 잘 적응하게 되는 반면에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일관성이 없고 통제적일 때 자녀는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또래관계에서 적응이 어렵게 되며(Pettrit, Dodge, & Brown, 1988) 비합리적인 반항행동을 보이는 낮은 사회적 지능을 보였다(Baruch & Barnett, 1981). 국내에서도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안효민, 2013; 노지영, 정윤경, 2010)

정서사회화 측면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사회화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권연희, 이종희, 2005; 정윤주, 2006; 허애수, 2003). 자녀가 정서표현을 할 때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집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정지선, 2010), 자녀의 사회적 참여행동이 빈번해졌다(임승희, 2013).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하고(김지연, 남은영, 2011) 우울과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과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였다(윤보람, 2010). 노지영(2009)은 자녀가 부정정서 표현 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예언하였고 박유경(2009)은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여 이 경험을 한 자녀는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보였다. 이선희(2014)는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이 높을수록 자녀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높아지는 것을 연구결과로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자녀의 부정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Eisenberg 등(1998)이 제안한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정서표현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표현으로 지속적인 패턴이나 스타일로(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적인 양육행동을 살펴볼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은 자녀가 분노나

두려움 같은 부정정서를 표현했을 때 부모가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격려하며 부정적 자극에 대처하도록 돕는 지지적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거나 그 정서에 대해 최소화 하거나 정서적 경험의 가치를 낮추는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를 갖게 하고 사회적인 소속감 및 안정감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변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Abidin(1992)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정도인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기질 및 성별, 연령과 같이 자녀가 가지는 특성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 등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 및 상황 관련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특히,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들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는 자극으로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유아의 발달 및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인식과 개인적인 성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Crnic & Booth, 1991). 초보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긴장감이 높고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연구와(권경숙, 2008),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

생하며 거부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고(Dix, Reinhold, & Zambarano, 1990) 부정적인 기질을 형성하게(Schudlich, Shamir, & Cumming, 2004)할 뿐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Dietz, Jennings, & Abrew, 2005).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였고(Belsky, 1984),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며, 이는 아동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킨다(Patterson, 1979).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녀에 대한 태도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게 되고(엄지원, 2011), 양육스트레스가 축적되면 비일관적인 부모의 훈육(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강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Wahler & Dumas, 1989), 아동학대(Howze & Kotch, 1984)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Belsky(1984)는 스트레스의 상황적 요소가 양육의 주요 결정 요소이며, 직접-간접으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학대와 우울을 높게 할 수 있다고 연구하였고 Crnic과 Greenberg(1990)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성적인 행동보다 감정적인 행동의 표출로 자녀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덜 보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더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Crawford, & Manassis, 2001; Vera, Granero, & Ezpeleta, 2012). 종합하면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내 구성원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하고 특히, 자녀에게 반응하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높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강압, 거부, 통제, 방임적 허용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신숙제, 정문자, 1998; 안지영, 2000; 이경은, 이주리, 2008)으로 나타났다. 전미순과 이영애(2009)는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인 양육스트레스 이외에도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검토하고자 정서조절곤란을 제안하고자 한다. Salovey, Bedell, Detweiler와 Mayer(1999)는 정서경험과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교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소개하였고 정서를 표현 및 이해하고 조절하며 정서에 반응하는 능력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Mayer, Salovey, & Caruso, 2000). 이것은 좌절, 스트레스 등과 같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결정하게 하고(Salovey, Stroud, Woolery, & Epel, 2002), 대인관계에서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연구하였다 (Goleman, 1995).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는 정서조절곤란을 야기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oy & Mauss, 2011).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거나 불쾌한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구하였고(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이지영, 2008; Ga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ross & John, 2003), 정서조절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개념을 넘어 자신의 정서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조절의 통합적 개념을 제시한 Gratz와 Roemer (2004)는 정서조절을 정서에 대한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희망하는 목표와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바라는 대로 정서 반응을 조절하려는 상황에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능력이 결핍될 경우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자녀 양육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의 결함은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적절히 반응을 하는 것은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등을 감소시켜 어머니 개인의 적응과 안녕,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인식이 증가 (Ackerman, Cicchitti, & Izark, 1995)하고 있다. 임희수(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도 애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하지만, 충동적이고 정서를 억압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과보호 혹은 거부하며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정서조절곤란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양육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낮아지고(김경미, 김영희, 박범혁, 2005) 낮은 애

정적 태도를 갖거나 공격적인 양육행동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하였다(김재형, 2014;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그리하여 최근 연구들은 보다 더 자세하게 양육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중 정서와 관련된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정서적 조절이나 정서적 역량이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Gottman, Katz, & Hooven, 1997; 임희수, 박성연, 2002; 배지우, 2010).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세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없어 각 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계 속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종속변인인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은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Lazarus와 Folkman(1984)는 어떤 사건이 스트레스로 지각 되느냐의 여부는 유기체가 환경적 자극을 해석하고 각자의 대처자원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조절하는 양식은 행동

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rnic과 Greenberg(1990)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경험인 일상적 스트레스가 중요하며 사건을 지각하고 대처한 양식이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견하면서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유발되는 다양한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부모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정서를 안정적으로 다루는 능력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어 자녀가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때 비지지적 반응을 많이 하게 되고 지지적 반응은 낮게 할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는 유아기(만3~6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부모의 역할 제한성, 우울, 유능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결과(정안나, 2007)와 자녀가 취학 전 연령일 경우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영·유아기 일수록 부모 및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있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였다. 또한, 3세의 경우, 보호와 돌봄에 대한 요구가 큰 반면에 반항적 행동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고 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자녀와 많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혜진, 2005). 만 4~5세의 자녀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고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자녀 발달에

다른 양육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어머니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게 된다(Crnic & Booth, 1991; 유우영, 최진아 1998).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상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교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대상선정은 각 기관으로 전화 연락하여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 내 구성원에게 설문지를 무작위 배포를 요청하였다. 총 400부를 발송하여 316부(79.0%)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 응답 자료와 불성실 응답진 27부를 제외한 289부를 입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측정 도구 중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반응하기에는 난해한 문항이 있고 양육스트레스의 양상과 양육행동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아기 자녀를 제외하고 만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응답자의 자료만을 선정하여 최종 22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의 연령대는 30대(82.0%)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0대(15.8%), 20대(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만 5세(30.2%), 3세(27.0%), 6세(24.3%), 4세(18.5%)의 순으로 대체로 비슷하게 분포했고, 성별 역시 남자(50.9%)와 여자(49.1%)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0)이 제작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와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 분포 (N = 222)

변인	구분	N(%)
연령대	20대	5(2.2%)
	30대	182(82.0%)
	40대	35(15.8%)
자녀 연령	만 3세	60(27.0%)
	만 4세	41(18.5%)
	만 5세	67(30.2%)
	만 6세	54(24.3%)
	만 7세	0(0.0%)
자녀 성별	남자	113(50.9%)
	여자	109(49.1%)

Form, K-PSI-SF)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의 보고로, 부모의 고통(PD),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까다로운 아동(DC)의 3개 하위 요인을 포함하여 각각 12문항씩 총 36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93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로 정서조절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정서조절곤란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는 총 36문항으로 6가지 요인은 똑같으나, K-DERS는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에서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 17번 문항을 제외한 3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인은 충동통제곤란, 정서적주의/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목표지향 행동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93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가 제작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한(Eisenberg & Fabes, 1994)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김희정(1995)이 번안 수정한 것이다. CCNES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 즉,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72 문항으로 6가지 반응 양식 각 하위 척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12점부터 60점까지이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지지적 반응은 .94이고 비지지적 반응은 .90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4 사회통계 분석프로그램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변인들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 분포를 살펴보고, 각 척도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Pearson- r)을 실시하였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모형 검증의 각 단계별로 산출된 개별 경로 추정치를 이용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추정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이 때 매개변인을 통하지 않는 직접경로의 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고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조절곤란($r \geq .24, p < .001$)과 비지지반응($r \geq .21, p < .001$)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지지반응과의 관계에서는 부모고통($-.07 \leq r \leq -.04, p > .05$)을 제외하고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r \leq -.18, p < .01$). 정서조절곤란의 경우 자각부족과 목표지향어려움과의 관계($r = .05, p > .05$)만을 제외하고는 하위차원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r \geq .17, p < .05$), 특히 목표지향어려움의 경우 지지반응과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05 \leq r \leq .03, p > .05$). 그리고 지지반응 중 감정표현격려는 정서조절곤란의 비수용성($r = -.03, p > .05$), 접근제한($r = -.06, p > .05$), 목표지향어려움($r = .03, p > .05$)이 역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지지반응과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r \geq .16, p < .05$). 준거변인인 간 관계에서는 비지지반응 중 최소화반응이 지지반응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02 \leq r \leq .02, p > .05$), 그 외 구성개념 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r \leq -.17, p < .05$).

2.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중 지지적 반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매개효과 검증결과

양육스트레스가 지지적 반응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그림 1,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지지반응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총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29, p < .001$), 2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59, p < .001$).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의한 직접효과를 통제하고도 정서조절곤란이 지지반응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17, p < .05$). 두 간접효과 경로에 대한 Sobel test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조절곤란을 야기하여 지지반응을 낮추는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Z = -1.19, p < .05$). 이 때 정서조절곤란을 거치지 않고도 양육스트레스는 지지반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beta = -.19, p < .05$).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중 비지지적 반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매개효과

다음으로 그림 2, 표 4와 같이 비지지반응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비지지반응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총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53, p < .001$), 2단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59, p < .001$).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의한 직접효과를 통제하고도 정서조절곤란이 지지반응을 정적으로 유의

표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2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양육스트레스 (.93)																			
2. 부모고통 (.85)	.79***																		
3. 역기능상호작용 (.88)	.85***	.49***																	
4. 까다로운기질 (.88)	.86***	.48***	.64***																
5. 정서조절곤란 (.93)	.59***	.43***	.53***	.50***															
6. 충동통제곤란 (.75)	.49***	.32***	.44***	.47***	.86***														
7. 자각부족	.35***	.30***	.33***	.24***	.51***	.38***													
8. 비수용성	.48***	.36***	.43***	.42***	.82***	.60***	.17***												
9. 명료성부족	.47***	.33***	.49***	.37***	.76***	.60***	.30***	.60***											
10. 접근제한	.43***	.30***	.40***	.39***	.85***	.69***	.23***	.66***	.66***										
11. 목표지향어려움 (.85)	.46***	.38***	.33***	.43***	.72***	.62***	.05***	.64***	.50***	.67***									
12. 지지반응	-.29**	-.05	-.40***	-.27***	-.28***	-.29***	-.36***	-.12***	-.28***	-.15**	-.02								
13. 감정표현격려 (.94)	-.20**	-.04	-.29***	-.18**	-.17*	-.19**	-.33***	-.03	-.14*	-.06	.03	.89***							
14. 정서증심반응 (.88)	-.30***	-.05	-.44***	-.27***	-.32***	-.33***	-.34***	-.16*	-.33***	-.20**	-.05	.94***	.73***						
15. 문제증심반응 (.83)	-.30***	-.07	-.39***	-.28***	-.29***	-.29***	-.34***	-.15*	-.31***	-.17*	-.05	.94***	.75***	.87***					
16. 비지지반응	.53***	.29***	.56***	.48***	.48***	.40***	.33***	.41***	.36***	.37***	.26***	-.25***	-.19**	-.27***	-.23***				
17. 최소화반응 (.90)	.37***	.25***	.36***	.32***	.32***	.24***	.25***	.28***	.24***	.23***	.16*	-.01	-.01	-.02	.02	.86***			
18. 처벌반응 (.81)	.46***	.21***	.51***	.44***	.46***	.38***	.28***	.39***	.37***	.38***	.26***	-.26***	-.17*	-.29***	-.26***	.93***	.71***		
19. 스트레스반응 (.71)	.56***	.29***	.61***	.51***	.48***	.43***	.34***	.40***	.33***	.35***	.27***	-.40***	-.33***	-.40***	-.37***	.83***	.52***	.69***	
M	2.33	2.73	1.95	2.31	2.36	2.48	2.74	2.33	1.93	1.97	2.34	3.45	3.31	3.56	3.47	2.63	2.73	2.38	2.78
SD	0.50	0.60	0.56	0.63	0.52	0.59	0.58	0.79	0.75	0.73	0.77	0.51	0.55	0.57	0.52	0.45	0.52	0.57	0.46

주. 괄호 안 수치는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임.*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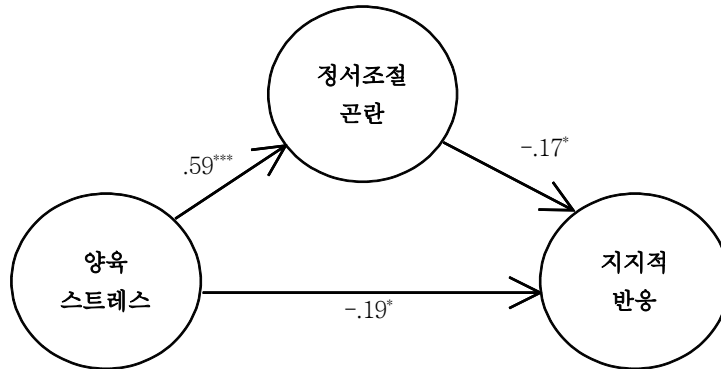


그림 1. 양육스트레스가 지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 $p < .05$. *** $p < .001$.

표 3. 양육스트레스가 지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N = 222$)

단계	변인	<i>B</i>	<i>SE</i>	β	<i>t</i>	<i>F</i>	R^2
1	양육스트레스 → 지지반응	-.30	.07	-.29	-4.42***	19.56***	.08
2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곤란	.61	.06	.59	10.77***	115.94***	.35
3	양육스트레스 → 지지반응	-.19	.08	-.19	-2.33*	12.31***	.10
	정서조절곤란 → 지지반응	-.17	.08	-.17	-2.17*		

주. Sobel test: $Z = -2.08$, $p < .05$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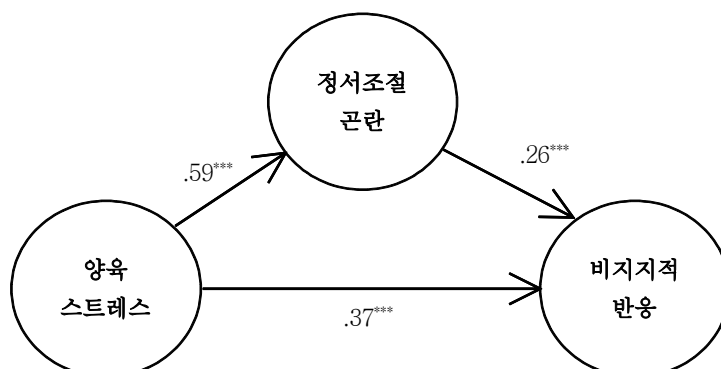


그림 2. 양육스트레스가 비지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 $p < .001$.

표 4. 양육스트레스가 비지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N = 222$)

단계	변인	<i>B</i>	<i>SE</i>	β	<i>t</i>	<i>F</i>	<i>R</i> ²
1	양육스트레스 → 비지지반응	.48	.05	.53	9.19***	84.44***	.28
2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곤란	.61	.06	.59	10.77***	115.94***	.35
3	양육스트레스 → 비지지반응	.34	.06	.37	5.43***	52.00***	.32
	정서조절곤란 → 비지지반응	.23	.06	.26	3.80***		

주. Sobel test: $Z = 3.59$, $p < .001$

*** $p < .001$.

하게 예측하였다($\beta = .26$, $p < .001$). Sobel test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조절곤란을 야기하여 비지지반응을 높이는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59$, $p < .001$). 이 때 양육스트레스의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역시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beta = .37$,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조절곤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표현에 대한 반응(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 매개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에 정서조절곤란이 매개 역할을 하지는 살펴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각 변인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토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 그리고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로 첫째,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어려움이 높아지는 관계가 있었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게 되고 정서조절을 통하여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감정을 해소시키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는 인지과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취약성을 유발하여 정서조절 곤란을 야기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고(Troy & Mauss, 2011)가 있고 부정적 정서와 폭식행동의 관계를 밝힌 국내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를 느낄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많아진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미연, 김지혜, 조용래, 2012). 또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이정미, 2011). 둘째,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의 지지적 반응은 낮아지고 비지지

지적 반응은 높아졌다. Belsky(1984)는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각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명령이나 비난과 같은 비판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Suchman & Luthar, 2001)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지각할수록 감정표현을 격려하고 정서와 문제 중심으로 행동하는 지지적 반응은 낮아진 반면, 정서를 처벌, 최소화, 스트레스로 행동하는 비지지적 반응이 높아졌다. 까다롭고 고집이 세고 공격적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문제 상황을 빈번히 초래하여 부모들이 더 간섭하고 통제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게 된다는 연구(Lee & Bates, 1985)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녀의 어머니가 더욱 애정적이고 열중하는 패턴으로 유아와 상호작용 하며(Lengua, West, & Sandler, 1998), 기질과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은 무관하다는 연구(Daniels, Plomin, & Greenbaugh, 1984)와는 다른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 하겠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부모의 고통은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 할 때 비지지적 반응 간 정적으로 상관을 나타낸 것과 달리 지지적 반응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상관에 불과하나 어머니가 경험하는 부모로서 느끼는 개인적인 고통은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 할 때 자녀의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거나 처벌을 통

해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자신감이 없고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받아들 수 있는 정서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이를 과도하게 받아들여 처벌을 통해 신속하게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 한다(정윤주, 2006).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며 보다 많은 명령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Patterson, 1983)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클수록 자녀에게 지지적 반응이 감소하고 비지지적 반응이 증가하였다. 정서조절 전략 접근이 부족한 어머니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최소화 하거나 부모가 더 불안과 스트레스를 드러내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권희정(2011)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이 높을 때,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대시켜준다는 연구와 유사하다. 부모-자녀 관계는 다양한 정서를 유발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어머니가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함에 있어 곤란이 있다면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을 격려하는 행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보다 빠르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보다 적절하게 반응하며, 나아가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할 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연구가 뒷받침한다(Mayer, Salovey, & Caruso, 2000). 특히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목표지향 어려움의 경우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 할 때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하는 것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지지적 반응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하위요인이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는 행동적인 요소와 밀접한 영역이므로 자녀가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충분히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깊게 반응해 주는 정서 중심의 행동과는 관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중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조절곤란의 부분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정서조절의 곤란을 매개로 하여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할 때 지지반응을 낮추고 비지지적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머니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되고 정서조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정서의 주의 및 자각이 부족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및 타인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시,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녀의 감정에 이입이 힘들어지며 공감적인 태도의 부족으로 지지적 반응은 낮추게 되고 비지지적 반응은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Fabes, Eisenberg와 Eisenbud(1993)는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부모의 능력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요

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아동이 좀 더 조절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게 할 것이라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정서적 반응은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주혜, 정윤경 (2016).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반응을 해석하고 정서적 표현행동을 결정하게 되므로 최초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가지는 정서조절능력과 자녀가 정서를 표현 할 때 부모가 보이는 반응행동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즉,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로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자녀가 정서를 표현 할 때 지지적 반응을 높이고 비지지적 반응을 줄임으로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연희와 이종희(2005)는 아동의 정서 및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일반적인 양육행동과의 관계보다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였고, Dunn, Brown과 Beardsall(1991)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보이는 행동은 긍정적인 정서인 기쁨이나 행복 등과 같은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뚜렷이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사회화 발달과 관련된 중요성이 시사되어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 할 때 어머니의 반응을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반응 유형과 부정적이고 비지지적인 반응 유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해 수행되었다. 통계 분석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대상을 모집하고 수행해야 하는 연구의 성격 상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행되는 방법이긴 하나,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녀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연구방법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질적 검증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서조절곤란의 부문매개의 검증은 다른 매개변인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변인의 충분설명력은 낮은 편이다. 즉, 충분설명력이 적다면 매개변인이 독립 혹은 종속변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용어만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해당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구분될 수 있는 관계임을 확인 한 바, 인과관계로 연결된 개념으로 판단되어 작지만 일정부분을 매개해 주고 있다고 보인다. 더불어 정서 관련 양육태도인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도 보인다. 유사한 매개요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 매개요인으로 양육효능감을 제안한 양육스트레스 모형이 있고 이지현(2013)은 양육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두 요인

을 매개효과로 증명한 연구가 있다. 또한, 장선희(2018)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지만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의 매개요인을 통해 양육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서관련 양육행동인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인 부정적인 요인만을 매개효과로 검증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설명력과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설명력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부적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서가인 비지지적 반응과 더 큰 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허츠버그의 두 요인에서 긍정적인 요소인 성취나 인정 등 동기요인(motivational factor)과 불만족과 관련된 부정적인 조건이나 환경적 경향인 위생요인(hygiene factor)이 각각 다르게 기능함을 밝힌 것처럼 각 선행요인이 더 주요하게 기능하는 결과 영역이 다를 수 있음이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Herzberg, 2003). 이에 대하여 부모가 느끼는 행복과 관련한 요인이나 정서조절에 대한 효능감, 정서지능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독립과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교차검증모형 등은 지지적 반응에 대해 더 많

은 설명력을 가질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칭되는 모형을 함께 설정해서 통합적인 모형을 검증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양육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자녀의 정서 사회화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계에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입증해 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 과정의 내용을 구성할 때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담 제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혜진 (2005).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숙 (2008).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어머니들의 양육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29-255.
- 권연희, 이종희 (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권희정 (2011).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부모효능감 간의 상관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김영희, 박범혁 (2005). 기초연구: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놀이치료연구, 9(1), 23-37.
- 김도란, 김정원 (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숙형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김재형 (2014).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운, 이명순 (2009). 관계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1), 61-76.
- 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8.
- 김희정 (1995).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미경 (2012).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

- 개효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영 (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 신념과 정서 표현 양가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영, 정윤경 (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 모인선, 김희연 (2005). 유아의 성격, 부모 만족도와 양육태도의 관계. 아동교육, 14(1), 131-144.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 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 박민혜, 정윤경 (2012).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에 따른 자녀의 목표지향성. 인간발달연구, 19(1), 123-141.
- 박유경 (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과 자녀의 정서조절 방략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8), 87-98.
- 배지우 (2010). 부모상위정서와 양육태도 및 아동 행동문제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이은혜 (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4), 167-177.
- 신숙재, 정문자 (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신주혜, 정윤경 (2016).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2), 21-42.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효민 (201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정서조절능력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연숙, 조복희 (200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3), 67-81.
- 엄지원 (2011). 한국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 최진아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윤보람 (2010).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원, 도현심 (2018).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5(2), 51-77.
- 이경은, 이주리 (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 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과 가정폭력의 매개 역할. *놀이 치료연구*, 12(3), 1-15.
- 이경자, 문승연 (2015). 보육교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1, 63-89.
- 이미연, 김지혜, 조용래 (2012) 외상유형, 자아탄력성 및 외상 후 부정적 인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41-241
- 이선화 (2014). 지각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민하영 (2014). 전업모와 취업모가 지각한 경제적 갈등과 부부갈등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9(3), 73-89.
- 이정미 (2011). 초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08). 정서조절방략과 정서장애의 관계 및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 (2013).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한지현 (2004).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13-434.
- 임승희 (2013).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 (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장선희 (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순, 이영애 (2009).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4), 97-116.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689-707.
- 정안나 (2007).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정순화, 임정하 (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 정윤경, 박혜진 (2012). 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 관련 양육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07-128.

- 정윤주 (2006).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관련요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11), 23-34.
- 정지선 (2010).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과 아동의 주의집중력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최미미 (2008).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애수 (2003).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ckerman B. P., Cicchitti D., & Izark, C. E. (1995).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Emotions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7(1), 1-1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uch, G. K., & Barnett, R. C.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1), 79-10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4) 169-208.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Crawford, M. A., & K Manassis, M. D. (2001). Familial predictors of treatment outcome in childhood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10), 1182-1189.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4),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aniels, D., Plomin, R., & Greenhalgh, J. (1984). Correlates of difficult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5(4), 1184-1194.
- Denham, S. A. (1993).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5), 715-728.

- Dietz, L. J., Jennings, K. D., & Abrew, A. J. (2005). Social skill in self-assertive strategies of toddlers with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1), 94-116.
- Dix, T., Ruble, D. N., & Zambarano, R. J. (1989).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the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6), 1373-1391.
- Dix, T. H., Reinhold, D. P., & Zambarano, R. J. (1990). Mother's judgement in moment of anger. *Merrill-Palmer Quarterly, 36*(4), 465-486.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ac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Procedures and scoring*. Tempe, AZ: Arizona State University.
- Fabes, R. A., Eisenberg, N., & Eisenbud, L. (1993).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correlates of children's reactions to others in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55-663.
- Fishbein, M., & Ai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2), 622-637.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131-1327.
- Goleman, D.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4(1), 41-54.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 (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6), 1829-1841.
- Herzberg, F. (2003). *One more time: How do you motivate employees?*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Howze, D. C., & Kotch, J. B. (1984). Disentangling life ev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 Implications for the primary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8(4), 401-40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Guilford.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5), 1314-1325.
- Lempers, J., Clark-Lempers, D., & Simons, R.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1), 25-39.
- Lengua, L. J., West, S. G., & Sandler, I. N. (1998). Temperament as a predictor of symptomatology in children: Addressing contamination of measures. *Child Development*, 69(1), 164-181.
-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2000). Mod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intelligence* (pp. 396-4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terson, G. R. (1979). Treatment for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s: A review of outcome studies. *Aggression and behavior change: Biological and social processes*, 83-138.
- Patterson, G. R. (1983).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1), 107-120.
- Salovey, P., Stroud, L. R., Woolery, A., & Epel, E. S. (2002).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reactivity, and symptom reports: Further explorations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Psychology and Health*, 17(5), 611-627.
- Schudlich, T. D. D. R., Shamir, H., & Cumming, E. M. (2004). Martial conflict,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dispositions toward peer conflict

- strategies. *Social Development*, 13(2), 171-192.
- Suchman, N. E., & Luthar, S. S. (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 285-315.
- Troy, A. S., & Mauss, I. B. (2011). Resilience in the face of stress: emotion regulation as protective factor.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Challenges across the lifespan*, 1(2), 30-44.
- Vera, J., Granero, R., & Ezpeleta, L. (2012). Father's and mother's perceptions of parenting styles as mediators of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pathology on antisocial behavior in outpatient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3(3), 376-392.
- Wahler, R. G., & Dumas, J. E. (1989). Attentional problems in dysfunctional mother-child interactions: An interbehavior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5(1), 116-130.
- 1 차원고접수 : 2018.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8. 11. 19.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Lee, SaeHeon

Dept, of Child counseling,
Catholic University

Jeong, Yoonkyung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on mothers'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nd to find out whether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play a role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222 mothers between the ages of 21 to 49 with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3-6. The mothers completed three questionnaires, which were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 and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Cronbach alpha,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and the Baron & Kenny(1986) mediating effect validation procedur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mothers'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This study helped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 process of parenting stress on the mothers' supportive and non-supportive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by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Other relate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words: parenting stres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